하버드비즈니스, 로이터가 선정한 **혁신적인 대학** Aalto University

4차산업시대! 글로벌 혁신 선진 교육을 이끄는 핀란드 **알토대 EMBA in Seoul**에 가다

"과거 경영자들은 환경 파괴, 노령화, 윤리 경영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만 하면 좋은 경영자로 평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는 새로운 모습의 경영자를 요구하고, 경영교육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통섭과 융합의 중요성이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한 핀란드 알토대 (Aalto University)의 한누 세리스토 (Hannu Seristö) 부총장의 말이다. 알토대학교는 핀란드의 경제, 문화, 산업을 선도하는 헬싱키 경제대, 헬싱키 디자인 예술대, 헬싱키 공과대 3개 대학이 통합해 만든 학교다. 알토대의 출범은 핀란드 정부가 교육 융합과 혁신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또한 "Tapping the World's Innovation Hot spots" 기사에서 알토대를 새로운 교육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혁신은 다양한 학문간 교차를 통해 발생한다'는 취지의 분석을 한 바 있다.

한누 세리스토
알토대 부총장

김태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유럽 명문대 핀란드 알토대 EMBA in Seoul 과정, 국내에서 해외 MBA 학위 취득

융합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 유럽 명문 알토대 EMBA 를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알토대 EMBA in Seoul 과정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 김태현)이 핀란드 명문 알토대와 손잡고 운영한다. 국내에 개설된 수많은 'EMBA (Executive MBA)' 프로그램 중 단연 눈에 띄는 이유는 졸업생 전원이 100% 유럽 명문대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알토대 EMBA가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이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글로벌 EMBA 프로그램을 개설해 한국에서 24년째 진행된 만큼 이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수천 명의 졸업생으로부터 검증 받은 과정이다. 국내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1년 반 동안의 수업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핀란드 현지에서 2주간의 교육을 마치면 국내 MBA와 알토대 EMBA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입학자 전원 유럽 명문
핀란드 알토대 학위 취득

현업 병행 가능, 주말 수업
국내 최대 동문 네트워크 자랑

국내 유일, 전 세계 0.5%의 경영대학만 획득한 '트리플 크라운'프로그램 획득

알토대 EMBA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경영대만을 인증하는 'AACSB' 'EQUIS' 'AMBA' 를 모두 획득한 프로그램으로, 3대 인증은 전 세계 0.5%인 95개 경영대학만이 획득했다. 국내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획득한 프로그램은 알토대 EMBA 프로그램이 유일하며, 글로벌 명문 경영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주말수업으로 현업병행 가능, 직장인 대상 인기 높아

국내에서 수료한 학점을 핀란드 알토대 본교 EMBA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말에만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도 시간 여유가 없는 직장인에게 큰 장점이다. 영어 실력에 따라 한국어·영어 혼용 클래스(강북캠퍼스)와 100% 영어(강남캠퍼스)로 수업을 하는 클래스 중 선택할 수 있다.

알토대 EMBA는 소속 대학 구분 없이 분야별로 최고의 석학을 초빙해 강의를 하는 핀란드 알토대 본교의 강사운영체계인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알토대가 자랑하는 '스타트업 사우나' '디자인 팩토리'등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에 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재학생 양경란 씨(LG CNS, 그룹장)는 "토론 형식의 수업이 굉장히 활기 넘치며, 경제와 전략 모두 거시적인 인사이트와 업무에 필요한 실무적인 배움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내 단일 MBA과정 최대규모,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

알토대 EMBA 는 올해 2월까지 동문 3835명을 배출해 국내 단일 MBA 과정으로는 최대 규모의 동문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3800명 이상의 동문이 페덱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존슨앤존슨, GE헬스케어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KB 등 국내 대표 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 권봉석 LG전자 사장, 채은미 페덱스코리아 대표 외에도 최근 40대 젊은 CEO 로 파격 승진한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 SK㈜ C&C 신현석 클라우드 Z 플랫폼 본부장 등이 주요 동문이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알토대 EMBA 마케팅 팀장은 "지난해 진행한 헬스케어 산업동문 모임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라며 "금년에도 IT 산업동문 및 여성 CEO 멘토 모임 등 동문들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2018 가을학기 입학 모집을 위해 5월 1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 메리츠타워 에서 특별강연과 함께 입학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핀란드 알토대의 한누세리스토 부총장이 방한하여 특별 강의와 함께 알토대 EMBA에 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강남, 강북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상담도 매달 열릴 예정이다.

입학전형 원서 접수는 6월까지 받고 있으며, 원서접수 및 문의는 홈페이지 (www.assist.ac.kr) 와 전화 (02-360-0721,0730) 로 하면 된다.

알토대 EMBA 동문 인터뷰

최고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크 통해 끊임없이 나를 깨운다

전민아 씨(사진 오른쪽)는 17년간 지멘스, 이케아, 허벌라이프 등의 다국적 기업에서 PR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PR 전략, 언론홍보, 사내 커뮤니케이션, 기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CSR 활동을 담당해 왔다. 2016년 2월부터 독일계 기업인 콘티넨탈 코리아에 입사하여 현재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및 이벤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콘티넨탈은 독일에 본사를 둔 전세계 5대 자동차부품 공급업체 중의 하나로, 국내에서는 이천, 세종, 판교, 서울, 천안, 전주 및 양산 등의 8개 사업장에서 현재 총 2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오성택 이사는 LG 정보통신, 허벌라이프, 크로락스 코리아를 거쳐 현재는 글로벌 케미컬 회사이자 생활용품 회사인 헨켈홈케어 코리아에서 구매 업무를 맡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MBA 프로그램 중 알토대 EMBA 과정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는?

전민아 직장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PR 과 커뮤니케이션 업무 자체는 제 적성에도 맞고 만족스러웠지만, 매일 동종업계 사람들만 만나고 동일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일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대로 큰 변화나 발전 없이 향후 제 5~10년 후의 모습을 그려 봤을 때 많은 불안감이 생겼었습니다.

우연히 알토대 EMBA를 졸업한 주변 지인의 주저 없는 추천으로 알토대 EMBA에 바로 진학을 결심했었습니다.

오성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독서나 외국어 학원 등을 통해서 꾸준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었으나, 비슷한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나 내 자신이 정체 되어 있다는 느낌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과연 나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가하는 스스로의 질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 하다는 생각이 절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사람이 먼저 공부를 마치고 적극 추천한 알토 EMB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 번의 망설임 끝에 학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전민아 씨는 오성택 이사께 알토대 EMBA 를 적극 추천한 이유는?

전민아 알토대 EMBA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저명한 교수님들의 다양한 명강의를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업계의 동기들과 팀 과제를 하면서 저의 부족한 식견과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점도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저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점이었습니다.

과정을 수학하시면서 느꼈던 알토대 EMBA의 가장 강력한 장점 하나만 소개한다면.

전민아 다른 국내 MBA와 달리 알토대 EMBA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저명한 교수진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도 지난 2011년 핀란드 현지에서 받았던 브랜딩 마케팅의 권위자이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Bernd Schmitt 교수님의 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알토대 EMBA가 아니면 결코 이렇게 저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오성택 과정 중 이루어지는 다양한 Case study를 통해 변화무쌍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한 이해, 분석 및 관점 등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들과의 적극적인 지식 교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간다는 점입니다.

알토대 EMBA 입학 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전민아 자신감입니다. 비록 2년간의 짧은 수학기간 이었지만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이직에 대한 용기도 생겼고 알토대 EMBA 졸업 후에 성공적인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토대 EMBA 정규 커리큘럼 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민아 무엇보다도 같이 수학했던 동기들이 알토대 EMBA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도 저희 동기들은 꾸준히 모임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제가 동기 모임의 총무를 맡아 동기 모임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성택 뭐니뭐니 해도 다른 산업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다양한 동기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적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및 산업군에서 온 동기분들과의 지식 및 사적 교류는 과정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의 배양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후배들에게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면?

전민아 항상 내가 1인 브랜드라는 생각을 갖고 본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는 소위 '워라벨'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양한 취미활동과 인간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기운이 업무 재충전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토대 EMBA 진학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마디.

전민아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직원들에게는 MBA 진학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MBA 과정은 실무 업무 최소 5년 차 이상에서 10년 차 정도의 경력직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MBA를 수학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토대 EMBA 는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들을 통해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업계의 선 후배 동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훌륭한 인적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성택 보통 MBA 를 지원할 때 커리어 개발 및 학부 과정을 마친 후 흔히 말하는 연봉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려고 MBA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토 EMBA를 통해 글로벌 리더나 수 억대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의 담금질이나 채찍질을 통한 어제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나로 성장 하다 보면 그에 따라 흔히 말하는 커리어상 성공이나 보상은 자연적으로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